

메시지 6

주의 회복 안의 인도 직분

성경: 느 8:1-10, 13:14, 29-31, 마 20:25-28, 23:8-13, 히 13:7

- I.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주의 회복 안에서 인도 직분은 영적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이 아니며, 성직 계급 제도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살전 1:5, 2:1-14, 5:12-13, 히 13:7, 17, 24.
- A. 인도 직분에 대한 주님의 관념은 사람의 타고난 관념과 반대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타고난 의식에 따른 인도 직분은 사실상 없다—마 20:25-28, 23:8-13.
1.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인도 직분이란 노예의 신분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원하여 노예가 되어야 한다—막 10:35-45.
 2. 인도 직분은 생명의 성장으로 형성되며, 필요의 결과이다. 필요가 없다면 어떤 인도 직분도 나타날 수 없다—벧전 5:1-3.
 3. 인도 직분에 대한 인간적인 관념을 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인도 직분이 항상 영적 역량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정하셨다—행 13:2, 9, 14:12, 갈 2:11-14.
 4. 주의 회복 안에는 조직화된 인도 직분이 없으며 획일화하는 조직도 없다. 그 대신, 주의 회복 안에는 모든 지체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한 머리가 있고, 한 유기체인 몸이 있다—엡 1:22-23.
- B. 신약에 따르면 사도들의 권위는 영적인 것이고, 그들의 말씀의 사역 안에 있는 것이다—행 2:42, 고후 13:5-6, 살전 2:13.
1. 그들은 교회의 사무를 간섭할 지위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그들이 공급하는 말씀만이 권위를 가진다—골 4:16, 히 13:7.
 2. 교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은 사도들에게 신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빌 2:12, 행 20:17-36.
 3. 만일 교회가 빛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린다면, 사도들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상황을 처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행 20:26-27, 고후 10:6, 딤후 1:13, 4:2.
 4. 인도 직분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산출되고 강화되고 제한받는다—딤후 1:9.
- C. 신약 안에는 한 인도 직분을 가진 한 사역이 있다—행 1:17, 25, 고후 4:1.
1. 오늘날의 기독교가 분열된 것은 너무나 많은 인도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2. 사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 직분도 하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과 주님과 그 영께서 모두 하나이시므로 한 인도 직분이 있다—엡 4:4-6.
 4. 한 인도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엡 4:3.
 5. 신약은 사역 안에 있는 인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 곧 건축을 위한 권위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후 13:10.
 - a.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는 인도자들의 가르침 안에 있었다—고전 4:17하-21, 7:17하, 11:2, 16:1, 살후 3:6, 9, 12, 14.
 - b. 각 교회 각처에서 같은 것을 가르친 것은 바울에게 위임된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전 4:17하.
 - c. 신약 사역 안에 있는 인도 직분은 신약 사역의 인도자들 자신 안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신약의 가르침 안에 있다—행 2:42, 딤후 3:10.

6. 신약 사역의 인도 직분은 통제하는 이상에 속한 인도 직분이, 통제하는 사람에 속한 인도 직분이 아니다—행 26:19.
 - a.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계시를 가져오는 이들의 한 사역 안에 있는 통제하는 한 계시에 속한 인도 직분이 있다—엡 3:3-5.
 - b.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인도 직분은 혼돈과 분열을 피하도록 우리를 제한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속한 인도 직분이다—잠 29:18상.

II. 회복의 책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중점은 합당하고도 적합한 인도 직분이다—느 8:1-10.

- A.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인도 직분 아래에서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으로 재조성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기 원하시는지 보여 주는 예표이다—느 13:14, 29-31, 담전 3:15.
- B. 느헤미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완벽한 인도자였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의 인도자들이 그의 본을 상고해 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느 5:19, 13:14.
- C. 느헤미야는 통치자였지만 전혀 야심이 없었다. 이것은 나라를 재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에스라가 필요함을 인정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느 8:1-10, 빌 2:3-4.
 1. 느헤미야는 에스라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 a. 나라를 재조성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b.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기꺼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2. 신성한 원칙에 따르면, 몸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는 이들이 한다—고전 1:1, 출 4:14하-16.
 - a. 혼자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어지는 것은 몸의 원칙에 따라 보내어지는 것이다—눅 10:1, 행 13:1-3, 롬 12:5, 살전 1:1.
 - b. 개인주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몸의 원칙을 범하는 것이다.
 - c. 주의 회복 안에, 몸을 건축하는 참된 일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일은 오직 조화된 동역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빌 2:19-22.
- D.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노예가 되어 쉬이는 방식으로 섬길 많은 형제들을 그분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위해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것이며,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느낀다.” —1997년 3월 24일, 위트니스 리.